사계절 양잔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7714

데뷔골 터졌다

이동국 프리미어리그 15경기 만에

미들즈브러 칼링컵 3R 진출 주역

'라이언킹' 이동국(28·미들즈브러·사진)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진출 이후 첫 골을 터트렸다.

이동국은 30일(한국시간) 오전 홈 구장인 리버사이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그1(3부 리그) 소속 노샘프턴 타운과 벌인 2007-2008 칼링컵 2라운드 경기에 선발 출전해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후반 21분 팀의 추가골을 터트려 2-0 승리의 주역이 됐다.

이로써 이동국은 올해 초 미들즈브러로 이적한 뒤 15경기(FA컵 및 칼링컵 포함) 만에 기분 좋은 '마수걸이 골'을 터트리면서 무득점 스트라이커의 오명을 벗고 본격적인 득점 사냥의 시동을 걸었다. 특히 이동국이 1군 경기에서 풀타임 경기를 소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팀내 주전 스트라이커 경쟁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즌 첫 선발출전한 이동국은 터키대표팀 출신의 공격수 툰카이 산리와 투톱으로 나서 전반 초반 스튜어트 다우닝의 크로스를 헤딩슛으로 연결했지만 골대를 스치듯 벗어나면서 선제골 놓쳤다.

아쉽게 전반을 득점 없이 마친 이동국은 후반 8분 미드필드 지역 왼쪽에서 상대방의 반칙을 이끌어 내면서 프리킥을 얻어내 선제골의 물꼬를 텄다.

키커로 나선 파비오 호셈박은 강한 오른발 슛으로 노샘프턴 타운의 왼쪽 골그물을 흔들면서 기선을 제압했다.

선제골 기회를 만들어낸 이동국은 마침내 후반 21분 다우닝의 오른쪽 측면 크로스를 이어 받아 잉글랜드 무대 데뷔골을 만들어 내면서 팀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산리가 중앙선 부근에서 오른쪽 측면을 돌파하던 다우닝에게 볼을 내줬고, 다우닝의 크로스를 받은 이동국은 페널티지역 왼쪽 구석에서 침착하게 20m 짜리 중거리포를 만들어 냈다.

이날 경기에서 이동국은 선제골과 추가골에 모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면서 팀의 칼링컵 3라운드 진출의 1등 공신이 됐다.

이동국이 마수걸이 골을 기록하면서 그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동국은 잉글랜드 진출 후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9경기와 FA컵 2경기 등 11경기를 뛰었고, 올 시즌 정규리그 3경기에 교체 출전했지만 득점은 없었다.

이동국이 1군 경기를 풀타임 뛴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동국은 데뷔전이었던 지난 2월25일 레딩FC와 2006-2007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홈 경기에서 후반 40분 교체 투입돼 인저리타임까지 9분을 뛰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날린 왼발 발리슛이 골 포스트를 맞고 아웃되는 등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구단은 경기 후 홈페이지를 통해 '동화같은 데뷔전이었다'며 호평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칼링컵, 한국 프리미어리거와 '특별 인연'

설기현·박지성 데뷔골 무대

'라이언킹' 이동국(28.미들즈브러)이 30일 오전 잉글랜드 축구무대 진출 7개월 여만에 데뷔골을 터뜨린 칼링컵은 한국인 선수와 인연이 각별하다.

설기현(28·레딩)과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어 이동국마저 잉글랜드에 진출해 첫 골을 칼링컵에서 장식했으니 한국인 프리미어리거들의 데뷔골 무대라 할 만하다.

설기현은 2004년 9월22일 챔피언십(2부) 울버햄프턴 소속으로 번리와 1라운드에서 전반 45분 선제골을 넣으며 잉글랜드 진출 4경기 만에 마수걸이 골을 넣었다.

박지성도 2005년 12월21일 버밍엄 시티와 8강전에서 첫 골을 터뜨렸다. 공식경기 첫 골을 넣으며 자신감을 찾은 박지성은 결승전에서도 맹활약을 펼치며 맨유가 칼링컵 우승을 차지하는데 힘을 보탰다.

프리미어리그(20개)부터 챔피언십(24개·2부), 리그1(24개·3부), 리그2(24개·4부)까지 잉글랜드 프로축구 92개 팀이 참가하는 칼링컵은 예선 1라운드에서는 프리미어리그를 제외한 72개 팀이 단판승부로 2라운드 진출팀을 가린다.

3라운드부터 프리미어리그 하위 12개 팀이 합류해 역시 단판승부로 24개 팀을 가려내고 이후부터 상위 8개팀과 함께 32강 토너먼트를 시작한다. 준결승만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치르며 결승전은 중립 지역에서 열린다.

女 39세 노장선수의 괴력

獨 디치, 세계육상선수권 원반던지기 3번째 우승

남자 높이뛰기선 농구선수 출신 신예 토머스 '금'

〈프란카 디치〉

만 39세219일의 프란카 디치(독일)가 2007 오사카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원반던지기에서 우승했다.

디치의 금메달은 2001년 에드먼턴 대회 같은 종목에서 엘리나 즈베레바(벨로루시)가 당시 만 40세268일로 1위를 한 이후 역대 두 번째 최고령 우승 기록이다.

디치는 29일 밤 일본 오사카 나가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여자 원반던지기 결승에서 1차 시기에 66m61을 던져 다리야 피시찰니코바(러시아·65m78)를 제치고 1위를 해냈다.

디치는 1999년 세비야 대회, 2005년 헬싱키 대회에 이어 생애 3번째로 세계선수권대회를 제패했다.

1968년 1월22일 옛 동독 볼가스트 출신인 디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필드 종목의 역사나 다름없다.

열 일곱이던 1985년 원반과 포환을 동시에 잡은 그는 1991년 도쿄 대회부터 원반던지기로 세계 무대에 나왔고 이번 대회까지 16년에 걸쳐 9차례 연속 개근했다. 남녀를 통틀어 역대 최다 출전 기록을 세웠다.

28일 여자 800m 결승선 앞에서 넘어진 마리아 무톨라(모잠비크)도 9회 출전했다.

디치는 그러나 올림픽에선 늘 불운해 2000년 시드니와 2004년 아테네에서 두 번 모두 메달을 놓쳤다.

불혹을 앞둔 나이에도 올 시즌 최고기록을 낸 다치는 다시 심기일전해 '젊은 마녀'들의 추격을 경험과 파워를 결합해 물리쳤다.

원반던지기는 전통적으로 높은 연령대에도 경기력이 죽지 않는 종목이지만 디치는 '나이를 거꾸로 먹는' 괴력을 발휘했다.

남자 높이뛰기에서는 농구 선수 출신의 신예가 우승했다.

높이뛰기를 시작한 지 2년밖에 되지 않는 바하마의 신예 도널드 토머스는 2m35에 걸린 바를 넘어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우승했다.

토머스는 야로슬라브 리바코프(러시아), 키리아코스 이오아누(키프로스)와 같은 2m35를 넘었지만 시기 차에서 앞섰다.

작년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올해의 여자선수 산야 리처즈(미국)가 자국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해 '무주공산'이 된 여자 400m에서는 불과 석 달 전까지 금지약물로 자격정지 상태였던 크리스틴 오후루오구(영국)가 50초16으로 우승했다.

미셸 페리(미국)는 여자 100m 허들을 2연패했다.

남자 1,500m에서는 케냐 태생의 미국 귀화 철각 버나드 라갓이 3분34초77로 대회 2연패에 도전한 라시드 람지(바레인·3분35초00)를 누르고 1위를 했다. 미국이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등 메이저 대회에서 1,500m 금메달을 따낸 것은 1908년 이후 99년 만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베컴의 수난

미국 프로축구 LA 갤럭시의 데이비드 베컴(왼쪽)이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수페르리가 결승전 CF 파추카(멕시코)와 경기 전반전에 수비수로부터 태클을 당해 넘어지고 있다. 베컴은 후반전에 페르난도 살라사르와 부딪혀 결국 무릎인대 부상을 당했다.

/AP=연합뉴스

이천수 "올시즌 K리그 남겠다"

네덜란드 프로팀 영입제의 거절

유럽 무대 재진출을 추진해 왔던 프로축구 울산 현대의 이천수(26)가 올 시즌 K-리그에 잔류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의 이적 마감 시한이 이달 말까지인 가운데 이천수는 최근 네덜란드 1부리그 페예노르트에서 영입 제의가 왔지만 거절했다.

이천수의 에이전트인 IFA의 김민재 대표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28일 오전 페예노르트 구단으로부터 이천수 임대 영입 제안서를 받았다. 하지만 선수, 구단과 상의해 올 시즌은 울산에 남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올해 K-리그 우승을 목표로 한 소속팀 울산이 현재 순위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양동현, 염기훈 등 공격수들의 부상으로 전력에 공백이 생겨 이천수로서는 팀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다"며 "일단 올해는 팀에 남아 우승 도전에 힘을 보탠 뒤 다음 기회를 기다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페예노르트는 임대 후 이적을 원했다.

임대 기간은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10개월이며, 임대료는 애초 37만5천 달러(약 3억5천만 원)에서 29일 2차 제안 때 50만 달러(약 4억7천만 원)로 조정했다. 완전 이적시 이적료는 200만 달러다.

페예노르트는 지난 2002년 8월 부산 소속이던 송종국(수원)이 입단해 2005년 1월 K-리그로 복귀할 때까지 27개월 여를 뛰었던 팀이다.

2003년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알 소시에다드에 입단한 뒤 이렇다할 활약 없이 2005년 울산에 복귀했던 이천수는 올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위건 애슬래틱을 비롯해 이번 여름에는 풀럼 등 2~3개 구단으로부터 꾸준히 관심을 받으며 유럽 재진출을 타진했다.

하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단 K-리그에 남게 됐다.

박성화호 파이팅!

내달 9일 바레인전 대비

적응 훈련차 오늘 출국

6회 연속 올림픽축구 본선진출을 노리는 박성화호가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2차전 바레인 원정(한국시간 9일 오전 1시)을 앞두고 31일 현지 적응훈련을 위한 첫 훈련지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로 떠난다.

박성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은 31일 정오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소집돼 한 차례 치르고 인천공항으로 이동, 두바이행 밤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우즈베키스탄과 최종예선 1차전에서 역전승을 거둔 한국은 각 조별로 1장만 주어지는 본선행 티켓 확보를 향해 상쾌한 첫 걸음을 내디뎠지만 바레인전을 앞두고 대표팀의 왼쪽 라인을 맡고 있는 이근호(대구)와 최철순(전북)이 나란히 경고 누적으로 빠지는 악재를 만났다.

공교롭게 왼쪽 미드필더와 풀백이 동시에 빠지는 바람에 박성화 감독으로선 바레인전 전술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우즈베키스탄전 역전골의 주인공 이근호는 뛰어난 돌파력과 골 결정력을 앞세워 올림픽호의 공격 활로를 뚫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 최철순은 베어벡호 시절부터 김진규(서울)-강민수(전남)-김창수(대전)과 더불어 오랫동안 포백(4-back) 호흡을 맞춰와 수비조직력 악화가 우려된다.

바레인 원정을 마치고 10일 오후에 귀국하는 박성화호는 시차적응을 위한 휴식과 훈련 시간도 제대로 챙길 여유가 없이 12일 시리아와 3차전 홈 경기를 치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일단 박 감독은 이근호의 공백을 20세 대표팀 주장 박주호(숭실대)로 대체했고, 왼쪽 윙백 자리에는 신광훈(포항), 김창훈(고려대) 등을 뽑았다.

더불어 스트라이커 하태균(수원)이 최근 K-리그에서 두 경기 연속골을 터트리면서 골 감각이 살아나고 있고, U20 대표팀에서 젊은 피가 수혈되면서 팀 내 경쟁구도가 갖춰져 팀 분위기 상승을 이끌고 있다.